

2024 서울 모노드라마 페스티벌 심사평

총 92편의 응모작 중에 1차 선정된 작품(+팀)은 18편이다. 그중 1팀이 심사 당일 불참을 알려와서 17편에 대해 2차 대면심사(PT+질의응답)를 하였다.

심사위원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팀(작품)에 대한 점수를 드리고, 합산 점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하였고, 점수가 같은 작품들은 토론을 통해 합의하여 최종 6편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자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고뇌와 선별 기준을 확인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개최되는 창고극장의 서울 모노드라마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작품들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정한 기준은 ‘마니아(관객)보다는 일반관객에게 모노드라마의 묘미를 선보일 작품이면 좋겠다.’ ‘모노드라마의 특성인 배우의 역량과 아우라가 드러나는 작품이면 좋겠다.’ ‘모호한 서사나 관념보다는 삶과 그 이면이 배겨있는 생생한 무대이면 좋겠다’이었다.

선정 작품은 (서류 번호순)
하이타이(극단 도시락), 어느 배우 이야기(극단 아리), 지워진 목소리 어두운 공간(극단 적),
The One 시즌3(창작집단 거기가면), 돌아온 빨간 피터의 고백(함께 걷는 사람들),
지정남의 오월 1인극(지정남)이다.

첫 번째 ‘서울 모노드라마 페스티벌’이 성황을 이루고 발판이 되어, 앞으로 창고극장의 정체성인 ‘실험과 도전’을 움켜쥔 젊은 모노드라마들도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심사위원장 홍 원 기